



SWING WITH THE

마음으로 굿샷! 시각장애인 골퍼들

“보이지는 않지만, 좋은 공기 마시며 잔디를 밟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마음껏 걷고, 가끔 뛰어보면 …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시각장애인 골퍼들은 스윙을 하는 데는 분명 핸디캡이 있지만 골프를 대하는 마음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글 남화영 사진 임영섭

지난해 10월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베어크리크골프장. 홀뿌리던 벚줄기가 그치고 하늘은 말끔해졌다. 베어 코스 12번 홀 페어웨이에 한 팀 인원치고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두 명씩 짹지어 있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흰색 스틱을 잔디 위에 놓고 볼 방향을 확인해주자 골

퍼는 연습 스윙 한두 번 하더니 샷을 했다. 품은 엉성했다. 불은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한 듯 얼마 날아가지 못했다. “괜찮아요. 잘~ 갔어요. 굿~샷.” 샷을 한 사람은 코치가 팔목을 이끄는 대로 따라 걸었다. 불안한 걸음걸이였다.

그런데 얼굴은 밝았다. 표정만 봐서는 불이

기막히게 쪽쪽 날아간 뒤 그린에 사뿐히 안착해 원 퍼트 거리를 남긴 듯한 느낌이었다. 그 앞 조는 그린에서 6명이 퍼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퍼터 헤드 윗 부위에 큼지막한 주황색 형광 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골퍼는 그것을 한참들여다보더니 신중하게 스트로크 했다. 하지만 홀컵을 한참이나 지나쳤다. 노란 조끼 입은 코치가 끌어들었다. “우아, 아슬아슬 했다. 그럼, 꾀업할게요.” 오케이가 아니라 꾀업이었다.



제 1회 시각장애인 골프대회

라운드 한 이들은 시각장애인들이고 이날은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된 ‘제1회 시각장애인골프대회’ 였다. 18명이 6개 조로 나뉘어 출전한



♥ HEART

이 대회에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1급 장애인 전맹(全盲) 8명, 2급 장애인 약시(弱視) 10명이 선수로 참가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했을까? 선수마다 코치가 한 명씩 붙어 티를 끊어주고 스틱으로 방향을 잡아준다. 그리고 조언을 해준다. 그런 위에 올라가면 편으로 홀컵을 두드리며 방향을 가르쳐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OB가 자주 나고 뒤땅, 톱핑, 생크도 부지기수였다. 홀 당 스코어는 기준 타수의 2배(더블 파)까지 플레이할 수 있으며, 그때 까지 그린에 볼을 올리지 못하면 그 홀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면서 스코어는 더블 파에서 2타 더한 타수를 적는다. 예컨대 과4 홀에서 8타 이내에 온 그린 못하면 볼을 집고(픽업) 스코어

는 '10'으로 기록한다. 대신 그린 위에 볼이 있으면 '9'를 적는다. 벙커에서는 클럽이 모래에 닿아도 벌티는 없다(일반 룰에서는 1벌타).

오후 한 시에 시작된 대회가 6시36분에 끝났다. 그런데 처음 출발한 조만 18홀을 다 돌 수 있었고, 나머지는 해가 저물어 17, 16번 홀 중간쯤에서 접어야 했다. 시각장애인골프협회 즉, KBGA(Korea Blind Golf Association) 총무 하연근(37) 씨가 이날의 우승자였다. 전반 58타, 후반에 63타를 치면서 121타로 2위와 8타 차로 우승했다. 꼴등(165타)에 비해 무려 44타나 적은 타수였다.

첫 대회인 만큼 KBGA 공식 최저타 우승이었다. 약시인 하씨는 훌륭한 스윙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코치가 부축하지 않아도 가까운 사





물은 구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퍼트도 형광 테이프가 가리키는 라인을 따라 비교적 정확하게 했다. 그는 유전적으로 눈이 안 좋아 고등학교 졸업 후 시력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골프를 시작한 뒤로는 어찌면 시력 약화 정도가 멈춘 것 같기도 하다. 안마사로 일하는 그는 아이디어가 많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KBGA 홈페이지를 도맡아 관리하는 재주꾼이기도 하다.

시각장애인들이 18홀 라운드를 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걸으로는 고난의 행군(?)처럼도 보였다. 중간에 클럽하우스에서 쉬거나 카트를 타지도 않았다. 배고프면 카트에서 빵을 먹고 펠트를 내내 걷고 샷하고 다시 걸었다. 어찌면 힘들어 보이게(그늘집에서 쉬거나 카트타는 재미 이런 것 하나 없이) 말이다. 그래서 어떤 참가자에게는 18홀 거리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또 그들은 과연 18홀 행군을 즐겼을까?

♥ ♥ ♥

따뜻하거나 매몰찬 눈길 사이

KBGA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8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매주 두 번(화, 금요일) 함께 훈련을 한다. 화요일은 필드에서, 금요일은 연습장에서다. 베어크리크 골프장에서 화요일 오후 시간 9홀을 무료로 내주면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내장객들이 모두 나간 뒷 조로 따라 나가는 식이었다.

8명에서 시작했던 모임은 가을이 되면서 30여 명의 회원과 10여 명의 자원봉사자 단체로 성장했다. 단체 강습을 받는 그룹 1기 10명, 2기 12명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예비 골퍼가 약 10명이 있으며, 경상도 등 지방에도 약간 명이 있다. 그리고 월 1~2회는 솟게임 연습장과 영종도의 세계 최대 원형 연습장 드림골프 레인지를 찾아 연습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다.

베어크리크골프장이 대회 코스를 제공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코치로 나섰다. 이들이 시

시각장애인 골퍼들(왼쪽부터 황인숙, 하연근, 양현경 씨).
2007년 11월 16일 스튜디오에서 촬영.

가장애인골프대회를 보는 따뜻한 눈길이라면, 다른 한 편에서는 매몰찬 시각도 있었던 모양이다. 베어크리크의 이석동 경기팀장은 이날 속 깨나 태웠다. 진행이 더뎌진 때문이었다. “오후에 한 팀이 플레이가 늦어진다면서 항의를 해오더니, 전반 훌만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했지만, 결국 그린페를 물어드렸죠. 정해진 진행 시간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린페 못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좀 씁쓸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슴 졸이기는 김덕상 단장도 마찬가지였다. 이흘 저흘 뛰어다니며 라운드를 재촉했다. “사실, 진행 문제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시간을 안 지켜도 되는 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18홀 라운드 하는 것이고, 대회의 형식을 갖추다보니 불가피하게 좀 늦어졌죠. 하지만 다음 대회에

는 더 나아지겠죠.” 그는 KBGA를 창설시킨 주역이다. 지금까지 한 라운드 수만 1100회가 넘고, 그 기록을 일일이 기록하는 열혈 골퍼다. 평소 골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올림픽CC 사장도 지냈고, 캐디일도 해본 그가 이 단체를 만든 산파다.

“화요일 9홀 연습 라운드를 제가 인솔합니다. 그때는 10여 명 정도 참가하지요. 저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자를 픽업합니다. 라운드는 9홀에 그치지만 그분들을 집까지 모셔다 주고 집에 들어갈 때면 자정 무렵이 됩니다. 꼬박 하루 라운드 하는 시간이 걸려요. 저도 라운드 하느냐고요? 천만에요.”

지난 2004년 본지에 ‘골프왕’으로 소개된 적도 있었던 그가 직접 라운드도 하지 않으면서 굳이 이 일에 신나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시합 다음날 아침, 선수 양현경 씨가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걸 보고서 저는 이 일을 정말 잘 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우지 않고 간직한다는 그의 휴대폰 액정 화면에는 대회에 참가했던 한 시각장애인의 한 자 한 자 공들여 작성한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하루

였습니다. 이런 행사를 마령(현)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

혼자 걸을 수 있는 쾌감

장애인협회 캘린더에도 모델로 등장하게 되어 ‘캘린더걸’ 이란 별명이 붙은 양현경(39)씨는 단아한 자태의 미모에 명문대를 나와 한 때 남부러울 것 없었다. 하지만 15년 전 베체트병에 걸리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결혼 6개월 후에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고, 1년 반 만에 다른 눈까지 실명됐다. 그리고는 12년을 음지식물처럼 은둔 생활을 하며 지냈다.

“집에만 머물러 있고 외부 활동은 거의 없었어요. 운동은 생각도 못했지요. 예전엔 집 근처 양재천으로 빵을 사러 가면서도 중간에 몇 번을 쉬어야 했습니다. 20분만 걸어도 좌골 신경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클럽을 처음 잡으면서 설레었어요. 내가 과연 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코스에서 어떤 홀은 500야드도 넘잖아요. 하지만 카펫같은 코스를 걷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눈이 안보이기 때문에 상상을 하죠. 예전에 보았던 이미지로요. 산이 있고, 옆에 계곡에서 물이 쏟아져 흐르고, 석양이 있고, 또 잔디밭이고, 이건 마치 천국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녀는 대회에서 146타로 여자부 1등이었다. 김 감독이 한 마디 거든다. “스윙 품이 아주 좋아요. 부드럽죠. 무엇보다도 골프를 한 이후에 친정 부모와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골프를 전혀 모르시는 친정 어머님이 TV에서 뉴스로 소개된 방송을 보시고는 전화를 걸어 말씀하시더군요. ‘니 스윙하면서 다리가 억수로 휙휙거리더라’ 스윙 코치처럼 스탠스를 잘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도 이번 대회 기사 난 걸 사무실에 자랑처럼 띠붙여놓았다더군요.”

잘 보이는 보통 사람들, 정안인(正眼人)들은 ‘눈이 안 보이는데 골프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실제로 대회 당일 개그맨 김은우 씨가 눈가리개를 하고 라운드를 시도해봤다. 일설에 의하면 왜소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 비거리 300야드 가까이 나간다는 장타에다 기름기 짹 맨 로우 핸디캐퍼인 그도 몇 홀 못가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눈을 가렸더니 그의 짱짱한 골프 실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골프는 정말 그 이상 멋진 운동이 없다. 김 단장은 필드에 연습 라운드 나올 때면 일부러 시

HISTORY OF THE BLIND GOLF

전 세계 시각장애인 골프의 역사

세계시각장애인골프협회(WBGA)는 미국이 중심이 돼 1998년에 발족했으며, 현재 12개 회원국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회원국이며 최근 대만, 홍콩이 기입 절차를 진행 중이고 한국은 아직 기입되어 있지 않다. 2년마다 세계 대회를 여는데, 지난 2006년에는 전맹(B1)뿐 아니라 악시(B2, B3) 장애인들도 정회원이 되어 대회에 참가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시각장애인 골프 즉, 블라인드 골프의 역사는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미네소타 주 딜러스에 살던 클린트 러셀이 타이어 폭발로 실명(失明)한 이듬해부터 골프를 시작했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그의 스코어는 접점 나아저 1930년대 초에는 84타까지 치더니 1938년 8월 20일

최초로 열린 시각장애인골프대회에서 우승하기에 이른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 그는 미국향군협회에 실명한 병시들의 치료 수단으로 골프를 권했고 협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골프를 치료 수단으로 권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국시각장애인골프협회는 변호사인 시각장애인 볼 올맨에 의해 1953년 창립된다. 슬로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다! You don't have to see it, to tee it!라는 역동적인 구호를 담았다.

유명한 골프도 제법 있었다. 1976년부터 16년 간 미국 회장을 역임한 팻 브라우너는 20연승을 비롯, 23회 우승을 한 전설적인 인물로 현재까지도 공식 최저타인 74타를 치기도 했다.

올해 52세인 미국 시각장애인 실라

드러먼드 어사는 지난해 8월 2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리턴의 마호닝밸리 골프장 4번 홀(파3, 1440야드)에서 홀인원을 했다. 남편과 코치, 친구 두

세계시각장애인골프협회
데이비드 블리스 회장과
자원봉사자 코치,



명과 함께 출기찬 빗속에서 드라이버로 날린 티샷이 깃대에 맞은 뒤 홀로 빨려 들어가는 희귀한 경험을 한 것이다. 28년 전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그녀는 10년 전에 골프를 시작했다.

현재는 미국을 비롯해 10여 개 국가의 시각장애인 수천명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 지난해 5월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큐슈시각장애인 골프협회 주최로 한·중·일 시각장애인 25명이 골프대회도 열었다. 가이드 캐디와 자원봉사자 등 총 참가 인원이 1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그리고 보면 한국에서 시각장애인골프 협회가 지난 해서야 창립된 건 우리나라의 골프 열기에 비하면 어쩌면 한참 늦은 것이다.

각장애인의 손을 놓고 스스로 걷도록 시킨다. 가끔은 뛰라고도 한다. 넓은 잔디 위로 부딪칠 염려 없고, 설사 넘어져도 안 다친다. 그들에게 골프장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해방구다.

9년 전 수술이 잘못되면서 실명하게 된 황인숙(43) 씨는 드라이버 샷이 장기다. “드라이버를 타 쳤는데, 잘 맞았을 때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죠. 청룡열차보다도 바이킹보다도 폐감이 더 커어요. 제 최대 비거리가 150야드랍니다.”

김 감독이 웃으며 말한다. “황 마리아(세례명)는 별명이 본드걸이예요. 한 번 스윙 자세를 잡으면 내려올 줄 몰라요.” 한 번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는 게 보통 사람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시각장애인인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그녀는 그 자세를 풀지 않은 채로 끝까지 버티며 연습하는 거다. 신장이 안 좋아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다. 하지만 골프를 시작하면서 그녀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엔 골프를 극구 반대하던 의사도 이젠 ‘허리가 튼튼해졌다’고 칭찬하고 격려한다. “필드에서 보셨어요? 그건 솜사탕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역시 시각장애인인 아니면 느끼기 힘든 표현이다).”



마음으로 하는 골프

이들은 지난 1년 간 골프로 인해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골프를 배울 때 갖는 초보자로서의 고민은 여느 일반 골퍼와 똑같다.

“퍼팅할 때 자꾸 머리가 흔들려서 아예 머리를 벽에 대고 스트로크 연습해요(황인숙).”

“코치가 그래요. 팔을 쭉 피라고, 허리 회전을 하라고, 또 헤드업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양현경).”

“마음을 잘 다스려야하는데, 쉬지는 않더군요(하연근).”

어떤 골퍼에게나 있는 이런 종류의 고민들이 있지만, 그건 ‘골프를 한다’는 자체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만한 일종의 즐거운 비명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이 골프를 한다는 것에 주눅 들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대신 잔디를 직접 밟고 남의 손과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서 걷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한다. 그걸 천국으로 느끼기도 하고 솜사탕

INTERVIEW

“골프와 봉사, 함께 하는 기쁨”

김덕상 한국시각장애인골프협회 단장은 올림픽골프장 사장을 거쳐 지금은 재보험회사인 벤필드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골프’와 ‘사회 봉사’라는 두 테마에 맞는 일을 찾던 중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협회 창설의 계기는?

지난해 1월 8일, 8명으로 시작했다. 전 혜인 2006년 여름 시각장애인 봉사모임인 ‘이동산회(이름다운동행산우회)’에서 김홍철 현 KBGA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였다. 그가 ‘국내에 시각장애인이 못하는 운동이 있는데 골프만은 아직 없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시발이 되었다.

올해 첫 대회는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네.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이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뜻의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해 흔쾌히 메인 스폰서가 되어주었다. 또 명운 퍼블릭으로 이름 높은 베어크리크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어 지난해 봄부터 오후 라운드 9홀씩은 코스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는 그린피를 50% 할인해주고,

우승자에게는 10회 무료 라운드를 보장해 주었다. 영종도 드림골프레인지도 한 달에 한두 번 연습 공간을 제공해준다.

첫 번째 대회를 치른 소감은?

첫 대회치고는 부상자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좀 지체된 점이 문제였다. 18홀 라운드는 처음이라 시간이 더 걸릴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진행 시간을 엄수하지 못했다.



선수들은 그늘집에서 잠시나마 쉬지도 못하고 18홀을 돌아 많이들 피곤했지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기쁘다.

골프라는 운동이 비싼 편인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

클럽은 내 친구들이 스폰서가 되어 세트째 주었다. 그래서 새로 장만한 사람이 고작 한두 명에 불과했다. 강남의 모 골프연습장에서 저렴하게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

골퍼 옆에서 듣는 코치의 역할도 크다.

지금 10여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가장 힘들다. 골프 포털 사이트 골프스카이의 크리스찬 모임 ‘에.Depth’ 소속 회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봉사자들은 하루 9홀 라운드 봉사가 잡히면 하루를 꼬박 바쳐야 한다. 코스에서는 캐디 역할에 가이드도 되어야 한다. 주부, 교회 장로, USGTF 프로로 구성된 이분들이 아침으로 봉사와 골프의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다.

의 스코어 카드에 해방감을 심는다.

시각장애인골프협회가 창설된 지 이제 1년 이다. 올해 가을쯤, 연습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이번엔 모든 참가자들이 18홀을 다 둘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하연근 씨가 새로운 최저타 기록을 세우기를, 황인숙 씨는 150야드를 넘기는 호쾌한 드라이버 샷을, 양현경 씨는 단단하고 안정된 스판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정안인의 시선이 보다 따뜻해지기를 바란다.

나도 마음의 눈으로 골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샷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골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골퍼가 되고 싶다. ■